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을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고형근(남, 1937년생, 성산을 삼달1리)

- 줄거리: 도깨비 불에 사람은 홀린다고 하는데 소를 앞세우고 가면 헛게도 안보이고 도깨비도 안보인다고 한다. 소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빛불이 사람 홀린다고 해서 불을 따라가당 보면은 길 아닌 디로 길 영 가다 보면은 그것이 머리가 혼동 돼영 ‘아이고 이것이 길을 잘못 들어져구나.’ 해난 일은 잊어도.

그것도 여러 사름이 잊엇주. 4·3사건 당시에 여기에 토벌대가 주둔할 때 순경이 밤중에 가다 보니까는 침침헌 밤중에 가다 보니까는 앞에 불이 벨롱벨롱허니까는 따라 간, 불을 따라 간 보니까는 어느덧 가보니까는 어느 불은 엇어지고 자빠진 곳 이 대왓 가운데 강 자빠져덴 헌 거라.

[조사자] 어디마씨?

[제보자] 대왓 가운데. 쟁 순경이 나온 디 그 사름이 그땐 좀 아판 정신 엇덴, 무당도 빌 어당 굿도 헛젠 허는 것이고,

[조사자] 게난 굿허난 좀 낫앗덴마씨?

[제보자] 옛날에 정신적인 것이난 굿헛 낫어. 굿 헤믄 낫겠다 허는 마음적인 병이니까는, 무슨 신체적인 병이 아니고 마음적인 병이 마음만 다스리믄 되는 거고.

개랑 가면은 헛게가 안 보이고, 물은 둘앙 가면은 헛게가 보인다고 허는데, 물은 헛게 보면은 도망가 버리고, 소. 소는 앞에 세왕 질은 몰라도 소는 앞이 세우면은 헛게도 안 보이고 도체비도 안 보이고, 길도 잘 보이고 소 뒤만 따르면은 목적지까지 간다. 그런 말은 들어났어.

- 핵심어 : 도체빛불, 대왓, 굿, 소, 물, 도체비, 쉼, 도깨비